



중령 안성규
제21보병사단

산악지역 방어작전을 준비하면서

1. 서론

‘기습’과 ‘배합전’ 그리고 ‘속전속결’을 최고의 전투원칙이라 규정하고 있는 북한군은 최근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교훈삼아 한·미 연합전력의 강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대한 이용한 배합전 수행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보병사단 신편과 일부 기계화부대 개편 등 전략·전술상의 중요한 변화를 모색하여 속전속결의 여건을 보장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¹⁾

이에 비해 우리의 훈련은 적 포병 및 기계화부대에 대비한 선형화된 방어선에서의 작전을 수행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전투모습이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전법의 기본을 배합전으로 규정하고 전방군단 및 사단의 정보병부대를 증편한 것을 고려해볼 때 이는 정면공격과 배후공격의 배합효과에 무력하고 전선이 비선형으로 발전되거나 급변한 상황에 능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항시 전선이 횡적으로 연결되는 것만을 정상이라 생각하는 한국군의 특성에 대비한 전력증강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와같은 북한군 전투서열의 변화로 인한 북한군의 전략·전술의 변화는 '60년대 4대 군사노선의 채택과 같은 큰 국면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동부 산악사단의 대대장으로서 산악 거점방어전투시 적의 위협을 최소화시킬 뿐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방어작전 준칙을 검토후 현 여건에 적합한 작전준칙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보았다.

2. 산악지역에서 방어작전 준칙 고찰

방어작전은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적의 공격을 방해, 저지, 격퇴, 격멸하는 작전으로 “방어는 단순히 적의 공격을 막는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이는 방자에게는 주도권이 제한되고 적의 공격을 기다려야 하며 공자보다 전투력이 열세하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막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어작전이 적의 공격을 막는 것은 물론 공자를 조기에 작전한계점에 도달토록 강요하여 공

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방어작전은 주도권을 잡기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자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방어작전을 계획, 준비, 실시함에 있어 적용되는 ‘방어작전의 준칙’ 7가지를 간략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장감시’는 적의 기도를 식별하여 전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보우위 달성과 지휘관의 결심에 기여한다. 여기에서 지휘관은 적의 전투력이 집중되는 방향과 시기, 규모를 식별하고 적의 기습을 방지하며, 적의 약점과 과오를 식별 및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둘째, ‘방어의 이점 최대 이용’은 지형, 시간, 생존 및 전투력 발휘 등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 및 협조시켜 전투력 승수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셋째, ‘전투력 집중’은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전투력의 상대적 우세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방자는 전투초기에 수세적인 작전이 불가피하므로, 지휘관은 전장감시를 기초로 적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전투력을 절약하고 적 주력이 지향되는 방향에 가용 전투력을 집중해야한다.

넷째, ‘중심깊은 전투력 운용’은 주방어지역에서 일회성의 결전만으로는 적의 제파식 공격과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중심기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전지역의 전 중심을 이용하여 전투력을 운용해야한다. 따라서 방자는 적지중심지역에서부터 후방지역까지 전투력을 중심깊게 운용하여 방자의 이점을 최대한 확대하고, 적의 공격기세를 추차적으로 흡수하면서 적에게 지속적인 전투를 강요하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방어수단의 통합 및 협조’는 제대별, 전장기능별로 동시통합성이 달성될 때 방어력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제대별 자산뿐만 아니라 상급부대 자산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자산들의 중복 운용을 피하기 위해 계획수립, 준비, 실시간에도 지속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여섯째, ‘적극적인 공세행동’은 적의 약점과 과오에 대하여 기습적이고 과감한 공세행동을 실시함으로써 적의 공격기세를 약화시키고 조기에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일곱째, ‘융통성’은 방어작전간 어떠한 전장상황에서도 방

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적의 다양한 공격양상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요구된다. 특히 방어작전은 전투력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융통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정형화 또는 편향적인 사고는 급변하는 전장상황에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지휘관은 예하부대 작전뿐 아니라 상급부대 작전을 동시에 통찰하여 종합적이고 폭넓은 사고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 방어작전준칙이 정형화된 방어작전에서는 적합하지만 산악지역 방어작전시 북한군의 ‘기습’과 ‘배합전’ 그리고 ‘속전속결’의 전투원칙에 대응하는 작전준칙의 정립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초전 전투력 보존과 주도권확보를 통한 공세이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의 ‘기습’과 ‘배합전’에 대비한 준칙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동부 산악지역에서 적과 지형적인 특징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생각을 정리하였다.

3. 산악지역에서 방어작전 준칙 적용

가. 북한군 전술의 변화

북한군은 공격작전의 목적을 “한국군 완전 소멸과 그들이 차지한 지대를 점령”하는 것에 두었으며 이를 위한 전투수행방법은 “전격전²⁾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부대전과 소부대전을 숨씨있게 배합하여 한국군을 이르는 곳마다 포위소멸하는 것이다.”³⁾라고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북한은 장기복무의 영향으로 최고참 병사는 10년에 가까운 숙련도를 갖추고 있으며 분대장 계급 역시 중사 이상으로 분대단위 전투 지휘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기에 북한은 소부대 전투기술 능력뿐 아니라 배합전수행 능력이 아군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북한군의 정보병부대 증강에 따른 산악지역에서 정보병부대는 제1제대 사단이 차후 임무달성 이전에 투입하여 주요 기동로상 중요지형을 선점하여 기갑여단의 중심기동 여건을 보장하고 우리의 전투력을 격멸하거나 일부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집단군의 최근임무 달성에 기여하고자 운용될 것이다.

나. 전장가시화를 통한 전승조건 구비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많은 부분은

1) 이는 북한군이 전쟁초기 ‘기습’, ‘배합전’, ‘속전속결’으로 주요한 지역을 선점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부 기계화부대를 개편하여 전선 집단군에 배속 운용하고, 포병군단의 장사정포를 전방부대에 증편 운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電擊戰 : ‘번개처럼 불이 번쩍나게 쳐들어가는 것’으로 이는 김정일의 사업방침인 속도전(速度戰)을 공격작전에 적용한 것으로 모든 ‘가용역량을 총동원하여 속전속결’하겠다는 전투수행 방법

3) 전격전과 배합전의 전투수행방법은 포병, 비행대, 소부대를 통합한 강력하고 불의의 공격준비태격으로 한국군의 방어체계를 와해시킨 후 주타격방향에서 제1제대가 보전협동으로 강력한 돌파를 실시하여 방어진지상에 돌파구를 형성한다. 제1제대가 형성한 돌파구를 이용하여 2제대를 투입하여 연속타격전(連續打擊戰)을 수행하여 공격기세를 유지한다. 대부대가 정면에서 강력한 타격을 실시함과 동시에 소부대(습격대, 우회대, 작승기육전대 등)를 한국군의 후방에 침투시켜 전·후방 동시전투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국군의 방어작전을 교란하며, 피로 및 중인로를 차단하고, 공격기동로상의 예로지역을 선점한다. 대부대와 소부대의 배합전으로 한국군의 유생역량을 소멸하고 한국군의 차지한 지대를 점령하여 상급부대에서 부여한 전투임무를 신속하게 달성한다.

모순된 것이고 더 많은 부분은 틀린 정보이며 가장 많은 부분은 불확실하다”⁴⁾라고 했다. 즉, 이렇게 모순되고 잘못된 정보속에서 장차 전개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휘관은 불확실하고 부족한 정보 속에서도 직관력과 통찰력으로 현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부대를 이끌어가는 전장가시화⁵⁾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순신 장군은 전장가시화를 위해 전투함보다는 더 많은 탐방선과 다양한 정찰요원을 운용하여 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왜군과 조선수군의 전투함과 전투수행 방법에 대해 피·아의 강약점을 파악하였으며, 롬멜 장군은 ‘플랑드르 전투’시 프랑수군에 비해 12배 이상의 무선통신병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34차레나 지휘소를 변경했으며 또한 3,500회 이상의 무선교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끊임없는 정찰을 실시하여 적에 관한 첩보를 보다 많이 수집하였고 필요시는 이것을 말단병사에게까지 전파하여 전장가시화에 노력한 결과 전투시 아군이 의도하는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전투력을 집중시켜 상대적 전투력 우세를 달성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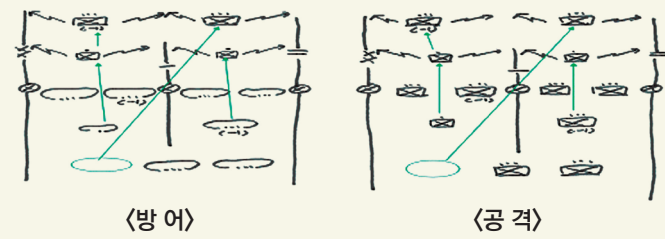
이와같이 지휘관은 지휘의 술(術)과 통제의 과학을 결합하여 전장을 가시화 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전장상황을 인식하여 장차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고 자신이 판단한 최종상태로 가용전투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장상황 예측능력, 적시적인 판단과 결심능력, 다양한 가용전투력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전투수행능력을 두루 갖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장에서 주도권⁶⁾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전투전 지휘관이 우선 조치해야할 최우선 과제라 볼 수 있다.

다. 기습, 배합전 및 속전속결 대비 방어작전 준칙 적용

북한군은 전투에서 ‘속전속결’하기 위해 ‘기습’과 ‘배합전’을 기본으로 수행한다. 이는 곧 적의 ‘기습’과 ‘배합전’을 차단하고 ‘가용화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도권을 확보’ 하면 ‘전장지배’ 여건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작전 준칙은 적의 ‘배합전’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준칙이 다소 미흡하기에 기존의 준칙에서 ‘후방작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여 대응책을 고려하였다.

먼저, 적의 ‘기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장을 가시화’시켜



야 한다. 이를 위해 대대전투시 敵과 地形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황판단 및 결심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대 기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즉 전투전 전장가시화를 위해 우선 적을 찾는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방지역 정찰 및 첩보수집을 위해 예비대에서 1개 소대를 주공지역에서 1개 분대, 조공지역에서 1개 소대를 과도하리 만큼 투입 운용하는 것이다. 이때 중대 책임지역내의 정찰대는 중대 무선망으로 대대책임지역내의 2개 소대(-)는 대대 무선망으로 통제하여 적과 지형 및 장애물에 관한 정보 및 첩보를 수집 하여 대대 기동계획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음, 적의 ‘배합전’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침투간 최대한 차단 및 격멸하기 위해 침투로를 사전 면밀히 분석⁷⁾하여 침투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공간 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즉 ‘중심깊은 전투력 운용’을 위해 전투지경선 인근 접경지역의 취약한 부대 간격, 땅굴 침투를 이용한 경계지역 중심의 공간지, 강력한 화력지원 하에 침입으로 돌파된 지역의 측방 및 공간지 등을 이용하여 침투를 기도할 것이므로 이는 인접부대와 협조된 작전으로 취약부분⁸⁾을 통제하도록 전투력을 집중 운용해야 한다. 즉, 경계지역에서는 침투방향에 대해 중심을 유지하여 중첩감시함으로써 우회를 방지하고, 조기에 탐지해야 한다. 탐지된 적에 대해서는 화력으로 타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주방어지역에서는 경계지역과 연계하여 전투진지 공간 통제에 주안을 두고 전투력을 운용해야 한다. 또한 경계지역에서부터 주방어 지역으로 연결되는 중격실 상의 중심상 중요지역에는 경계 분견대, 수색/전투 정찰대 등 반드시 병력을 배치하여 방어의 중심을 유지함으로써, 적의 침투를 차단 및 격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악지역에서의 예비대 투입은 급경

사 및 기동로의 제한으로 작전반응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사전 투입로에 대한 준비대책⁹⁾을 강구해야 한다.¹⁰⁾ 둘째, ‘공세적인 후방작전’으로 적 점령 예상지역에는 아군이 선점¹¹⁾하도록 함으로써 적의 우세를 거부하고, 작전지역에 대한 감시 및 정찰활동을 강화해서 침투한 적을 격멸해야 한다. 또한 북한군 경보병부대가 탐지될 경우 즉시 화력으로 타격할 수 있는 탐지-타격의 연동체계를 갖추어야 한다.¹²⁾ 작전지속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기동부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간접 경계를 고려하여 중요시설 및 중요 감시·화력자산의 위치를 선정, 운용하고, 자체 방호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운용해야 한다. 후방지역에서는 북한군이 아군이나 주민으로 위장하여 활동하게 되면 피·아가 혼재되어 식별이 곤란할 수 있기에 주민신고체제를 강화하고, 민·관·군 통합작전을 통해 피·아 식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의 ‘속전속결’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 ‘전투력 집중’과 ‘중심깊은 전투력 운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속전속결’을 위해 수행하는 전투현장에서 아군이 승리하기 위한 핵심 3가지 요소는 적절한 ‘예비대’ 및 ‘화력’ 운용 그리고 ‘지휘관의 현장지휘’라고 생각한다. 이는 적의 돌파(침입)지역에 전투력을 집중하여 적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화력유도와 실시간 지명사(움직이는 적)에 의한 3분 이내 초탄 발사가 가능토록 모든 중·소대장은 화력요청능력을 완전히 숙달해야할 뿐 아니라 예비중대는 산악지역에서 다양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전투기술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어야하며 전투정찰대 임무수행을 고려하여 분대장까지 화력요청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대대장은 이를 한 Tempo 빠르게 지휘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전투지역 현장에 위치하여 선 조치하며 지휘를 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방어작전은 적의 공격을 방해, 저지, 격퇴, 격멸하는 작전으로 방어의 이점과 적의 약점 및 과오를 이용하여 적의 기세를 약화시키고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조기에 공세이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통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¹³⁾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북한군은 전투의 기본형태인 공격작전의 목적을 “한국군 완전 소멸과 그들이 차지한 지대를 점령”하는 것에 두었으며 이를 위한 전투수행방법은 “전격전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부대전과 소부대전을 솜씨있게 배합하여 한국군을 이르는 곳마다 포위소멸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전법의 기본을 배합전으로 규정하고 전방군단별 수개의 경보병사단을 편성한 것과 전방사단의 경보병대대를 증편한 것을 고려해볼 때 북한은 배합전 수행 능력을 한국군대비 우세한 비대칭전력이라 판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 동부산악지역에서 전투수행개념을 토의한 결과 지형적인 특징과 적과 아군의 배치전력 및 장병 전투수행능력을 고려시 무엇보다도 위협적인 것은 적 경보병부대의 배합전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또한 최근 북한군의 배합전 부대가 신·증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악지역에서의 가장 위협적인 배합전 관련 방어작전준칙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에 증편된 경보병부대의 위협대비 추가개념을 적용하여 ‘공세적 후방작전’을 기존의 방어작전준칙에 추가하여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였다.¹⁴⁾ **국**

4) Carl von Clausewitz, Vom Kriege, 류계승 역, 『전쟁론』, (서울 : 책세상, 1992) p.102.

5) 불확실하고 제한된 정보속에서도 METT+TC요소, 공물작성상황도, 타 지휘관 및 참모 조인 등을 기초로 현 상황을 이해하여 장차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고, 임무의 성공적인 완수와 차후작전을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상태(End State)를 구성하며, 부대가 최종상태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구성하는 것.

6) 주도권 :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심리적 우세를 달성함으로써 아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투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

7) 주요 ‘목’ 및 도로·하천·개활지, 땅굴 침투 예상지역 등 취약지를 분석

8) 전투지경선상 간격, 땅굴침투 예상 출구지역, 돌파된 지역의 측방 공간 등

9) 춘·추계 진지공사시 전술도로, 투입/철수로신설 및 작전지역 도보정찰을 통해 평시 지형과 기상적인 특징을 숙지해야 한다.(전술도로 : 차량 출입 가능, 투입/철수로 : 병력 도보이동 가능)

10) 따라서 예비대는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침투로 별 중·소대단위 등 소규모로 분산 운용하고, 실제 운용될 지역에 최대한 근접하여 지근거리로 배치, 운용함으로써 작전 즉응성과 공세행동의 성공을 보장해야 한다.

11) 후방지역작전 전담부대, 기동타격대와 항방 예비군을 연계성있게 운용

12) 적의 능력이나 활동성격을 고려 시 표적의 노출시간이 짧고, 노출 즉시 지역을 이탈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동타격대를 투입하여 적을 격멸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3) 방어작전의 목적 : 공세이전의 여건조성, 적 부대 격멸, 중요지역 확보, 시간 획득

14) 방어작전 준칙 개선(안) : 전장감시, 방어작전의 이점 최대 이용, 전투력 집중, 중심깊은 전투력 운용, 적극적인 공세행동, 공세적인 후방작전, 융통성